

## 5.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일까요? 예수님의 거울을 통해 우리 한 번 같이 보아요.

2014.09.03 – 클레어 자매의 설명

(클레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의 사건들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은 분명하게 그 사건들이 앞으로 닥칠 때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해주기를 저에게 요청하셨어요. 특히 주님의 신부로서의 저희의 신분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일까요? 휴거 때 누구를 예수님께서 데려가실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저에게 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정의 내려주라고 요청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있으실까요? 예수님의 신부들의 특성들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은 매춘부와 결혼하지 않을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배우자로서 신부를 선택할 때 몇몇 아주 중요하고 의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세요. 저희는 예수님께 선택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원해요. 여기에서 저희가 자세히 봐야할 몇 가지가 있어요.

만약 저희가 가볍게 넘기면서 ‘음.. 나는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은 나의 주이고 구원자야. 나는 휴거 되어 질거야.’ 라고 말하면 저희는 단지 저희 스스로를 놀리는 것이예요. 저희는 지금 정말 머리를 모래에 묻고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지금 예수님과 저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정말 알고 싶어해요. 저희는 세상의 신부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신부일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인지를 알 수 있는지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잘 입고, 돈이 많은 기독교인이 아니예요. 이러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찾고 있으신 신부들이 아니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호가 되는 것은 정말로 가시면류관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닮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찾을 때 여러분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그 둘은 인생에서 똑 같은 의제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성격이 서로 잘 맞고, 오직 서로만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예요. 타협하지 않고 신실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바라시는 것들이예요.

겉모습이 아름답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가시면류관을 알고 계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으로의 할례와 그들의 마음의 거룩함을 알고 있으세요. 저는 지금 기독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보다 성공하고, 역동적이고 자신의 지위를 더 차지하는 사람들로 간주되어지는 것에 걱정되요.

여러분이 팔복을 읽어보시면 누가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진정으로 닮았는지 즉시 분명하게 알 수 있을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아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들은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마태복음 5장1~12절)

이 성경구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가 복이 있다고 여기셨는지에 대해 저희에게 상당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공하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번영하는 역동적인 교회와는 정말 다른 그림이에요. 이것은 정말 달라요.

첫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유산을 받았을 때 돈을 과도하게 혹은 풍족하게 가지고 있어봐서 저는 그것을 알아요. ‘마음의 가난’이 조금 변화되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차를 보면서 “와 저차는 내 차만큼 좋아 보이지 않네”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했었어요. 제가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저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들은거지? 내 생각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 생각을 하지?'

저는 더 참을성이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덜 관대해졌고, 더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상황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 영혼에게 정말 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자만함과 오만함을 불러왔고 이것은 정말 완벽하게 역겨웠어요. 예수님 덕분에 이 상황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한 빨리 처분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기 마음이 가난하다는 비유가 있어요. 부유한 사람들과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부유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극히 온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부유하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을거예요.

다음 성경구절은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예요.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 구절은 아름다워요. 저희가 땅의 주인을 생각하였을 때 온유함은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집과 목장 등을 소유한 땅의 주인에게 온유함은 저희가 땅의 주인과 연관시킬 수 있는 마지막 특성이예요. 하지만 성경구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온유한 사람들이 크고 부유한 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최신 휴대폰, 최신 컴퓨터 프로그램, 최신 업그레이드와 같은 것들에 목마르고 굶주려 있다면 여러분은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최신 상품들에 목마르고 굶주려 하는 것이고 그것은 최악의 방해요소예요.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공허함만을 남겨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저는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이건 제 경험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힘, 영향력, 그리고 돈으로 권세와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비를 베풀 필요를 느끼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독립적일수록 더 자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거예요. 여러분은 더 엄격해져요. 더 많이 판단할수록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에 더 많이 갇히게 되어요. 자비로운 사람들을 위한 자비는 많지 않아요. 세상에서 돈, 영향력 그리고 권력이 여러분을 독립심의 위치에 놓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자비가 더 적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비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가장 큰 불만이자 가장 큰 욕망이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저는 주님을 보고 싶어요.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요.” 여기서 주님은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요청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지나갈 세상의 것들에 애착을 가지지 말고, 저희 자신과 저희의 의제를 찾지 말고, 지속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제에 두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세상에 싸여있을 때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보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저의 모든 삶은 세상의 축수들을 자르고 저의 마음을 예수님께 더 드리고 저의 동기들을 정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였어요. 이걸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의제가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최우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축복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의제들에서 돌아서서 우습게 보이고, 하찮은 존재가 되고, 세상의 지위를 선택하지 않고, 부유하지 않고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되나요? 그들은 단순하고 순수한 삶을 선택하였고, 세상의 유혹에서 뒤돌아섰고, 어느 누구에게도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 많이 무시받고 핍박받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그들의 가족들에게 핍박받아요.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헌신 때문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핍박받고 무시받아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들은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에게 기대하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요.

요약하면,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어요. 주님은 마음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찾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찾고 있어요. 저는 요즘 교회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야해요. 저는 몇몇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보이고 박수를 받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국민 총생산(GNP)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국민 총생산(GNP)은 성공, 번영, 건강, 그리고 이것과 수반되어지는 모든 것들처럼 보여요.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성공한 기독교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습게 봐요.

저희는 누구를 기쁘게 하길 원하나요?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나요? 저희는 세상과 함께 남겨지는 것을 원하나요? 아니면 주님과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 되어지기를 원하나요?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저희가 누구인지 누가 아닌지 그리고 저희의 삶이 세상에 얼마나 깊게 빠져 있는지, 저희가 얼마나 많이 세상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알아봐야 할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에 할례 받지 않은 부분, 주님과 닮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보여 달라고 요청드리기를 간청해요. 진심으로 저희가 휴거 되어질지 되지 않을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찾아봐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 휴거는 어느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도시의 목사님을 알아요. 그의 마지막 해에 그는 주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주님은 그 분에게도 저에게 하셨던 말을 똑같이 하셨어요... “나는 문 앞에 와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언제든지.”

그래서 저희는 준비하기를 원해요. 저희는 주님의 신부로 선택 되어지길 원해요. 저희는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저희가 완벽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저희가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의미에서 합당해야 해요.

저희의 마음이 주님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예요. 저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붙어 있다면 저희는 세상에 묶이게

될거예요.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휴거되어 천국으로 떠나는 것을 볼 것이고 저희는 남겨져서 세상의 의제들에 묶이게 될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진지하게 저희가 원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요? 아니면 저희의 마음에 의문들을 남기나요? 성령님께서 저희를 다루어오시며 현명하고 어리석은 처녀들 같은 비유를 저희들의 마음에 가져다주셨나요? 성령님께서 저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것을 저희들에게 부드럽게 유도하셨나요?

만약 저희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저희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간, 이 지구가 보게 될 가장 끔찍하고 끔찍한 때에 남겨질 위험에 처하게 되요. 이것이 가치 있나요?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선택이고 저도 해야 할 선택이에요.

저의 시간과 돈, 생각, 저의 기도 혹은 기도의 부족에서 제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 슬픔을 느끼고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알고 남겨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매일 제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제 의도를 확인하고, 제 마음을 살펴보고, 제 양심을 살펴보고 제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는지를 확인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똑 같은 것들을 하고 모두 공중에서 만나기를 기도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요.